

# 전남인재개발원, 강진서 새출발

옛 다산수련원 신청사 개원식

광주 시대 마감

68년만에 도민 품으로

전남도인재개발원이 지난달 28일 68년간 광주 교육원 시대를 마감하고 강진에서 전남 인재 양성의 전문기관으로서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다짐하기 위한 개원식을 개최했다.

'새 시대 으뜸인재, 더 새로운 행복 전남'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한중 전남도지사,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김승남 국회의원, 이승욱 강진군수, 김장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등 90여 명이 현장에 참석하고, 22개 시군 관계자와 교육생 등 300여 명이 비대면 화상으로 참여했다.

행사 현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행사를 진행했다.

개식 선언으로 시작된 행사는 개발원 역사 영상, 도지사 기념사, 축사, 축하 영상, 개발원 비전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개정식 본행사 후에는 테이프 커팅식, 기념식수 등 부대행사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개원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강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개원식이 28일 강진 인재개발원 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가 참석자들과 개원을 축하하는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진군과, 개발원이 전남으로 이전하도록 관심과 응원을 보내준 강진군민을 포함한 200만 도민에게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인재개발원이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이제 전남도청의 모든 기관이 도민 품으로 오게 됐다"며 "도민에게 활짝 열린 개발원을 만들고, 다산의 애민 정신과 청렴정신을 바탕으로 도민을 섬기는 새 시대 으뜸 인재를 양성해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선호 전남인재개발원장은 "이번 개원식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전남인재개발원의 비전을 알리고,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도약하도록 도민과 함께 행복 인재, 으뜸 인재, 혁신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원 신청사는 478억원을 들여 옛 다산수련원 7만6179㎡ 부지에 지상 3층 4개동(본관, 인재관, 행복관, 보람관) 총면적 1만3952㎡ 규모로 건립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농기원 자체 개발 양파 현대백화점 입점

2개 품종 전국 16개 점포서 판매

대백화점을 통해 판매하게 됐다.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은 국산 중저보급 확대를 위해 개발한 양파 신품종 '아리아리랑', '스리랑' 2개 품종이 지난 28일부터 전국 현대백화점 16개 점포를 통해 판매중이다.

'아리아리랑', '스리랑' 신품종은 일본산에 비해 이상기상에 대한 재배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다. 일반 품종과 비교해 과육이 단단하고 아삭한 식감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며, 상품 수량이 높아 재배 희망 농업인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들 품종은 지난해 농촌진흥청 주관 신품종 시장 평가회에서 도매시장 유통 관계자, 기자, 농업인들에게 기, 모양, 경도, 저장성 등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올해 생산된 양파 전량을 현

대백화점을 통해 판매하게 됐다. 김덕형 전국양파생산자연합회 대의원은 "농업기술원을 통해 신품종 실증재배를 해 본 결과 일본산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다"며 "내년에 국산 품종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파 품종을 개발한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김성준 연구사는 "종자는 농산물 핵심소재로 양파종자 독립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했다.

양파의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19년 기준 30.9kg이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10개 중 7개는 일본산 종자다. 전남 양파 재배면적은 지난해 기준 5743ha(1700여만평)로 전국의 39%인 1만4673ha를 차지하는 최대 산지이지만, 종자 자급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국산 품종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전남농업박물관, 전통 방식 모내기 체험 행사

5일, 마당극 공연·풍물놀이도

연'과 '풍물놀이'를 선보여 흥을 돋을 예정이다.

전남도농업박물관(관장 임영호)은 오는 6월 5일 오전 10시 농업테마공원 다랑이논에서 '전통 모내기 체험 및 마당극 공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옛 방식에 따라 만들어 놓은 다랑이논 못자리에서 행사 참가자가 직접 손으로 모를 찌내 밭을 띄우면서 전통 방식으로 심는 체험행사다. 또 남도의 대표적인 마당극단 '갯돌'을 초청해 모내기에서 추수까지의 과정을 담은 '마당극 공

행사 참가자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등록한 후, 모내기 체험행사의 간단한 설명과 마당극 공연을 관람한 뒤, 못자리에서 자란 모를 손으로 직접 찌지푸라기를 이용해 '모춤'을 만들고 이를 지게에 저는 노으로 옮긴 다음 못줄을 띄워 심으면 된다. 전남농업박물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예년에 해오던 '못 밭 먹기' 체험은 취소하고 참가자 간격을 5m 이상 유지하면서 20명씩 교대로 체험하도록 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전남 섬으로 감성 별미여행 오세요

도, 남도 여름여행 책자 제작

관광지·체험·먹거리 등 소개

전남도가 울창한 푸른 숲과 일렁이는 파도 속에서 휴양하기 좋은 전남의 여름 관광지를 소개한 '남도 여름여행'을 제작했다. '남도 여름여행' 책자엔 힐링, 섬, 섬표, 감성, 별미여행 주제별로 즐길 다양한 관광지, 체험, 먹거리를 실었다.

청량감 가득한 힐링여행 편에서는 해수욕장, 계곡, 물놀이장, 레저체험을 소개했다. 특히 신안 대광해수욕장에서 푸른빛 바다의 파도에 안겨 더위를 식히거나 구례 피아골 얼음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자연 속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순례자의 길로 알려진 신안 기점·소악도, 농어 낚시와 낭도곶섬막걸리가 별미인 여수 낭도, 청정 바다를 간직한 완도 여서도, 새떼처럼 섬이 모여있는 진도 조도 등 남도의 섬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 훌쩍 떠나기에 제격이다.

호수와 숲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장성호 수변길, 황금빛 노을이 물드는 해남 수류미 등대길, 황토로 물들인 돛이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영산강을 유람하는 나주 황포돛배, 백운산 끝자락에 별빛이 쏟아지는 광양 노랑이골에선 쉼과 여유를 즐길 수 있다. 문화가 있는 감성 여행지는 청춘의 에너지가 반짝거리는 순천 청춘창고, 시원

한 동굴에서 달콤한 휴식을 즐기는 광양 와인동굴, 고려청자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아이들과 함께 우주여행을 꿈꾸는 고흥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이 있다.

이밖에도 맛과 영양이 가득한 남도 특산물로 무화과와 블루베리, 임금님께 진상한 보양식 민어, 청정 남해의 기운을 머금은 갯장어 등도 소개했다.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와 무더위로 지친 심신을 달래줄 남도의 푸른 바다와 청정한 숲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건강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남도 최고 전통주에 담양 '대대표블루'

전남도 품평회 12개 브랜드 선정

최고 점수를 얻은 '대대표블루'가 종합대상 영예를 안았다. '대대표블루'는 담양에서 생산한 유기농 쌀과 토종 벌꿀을 사용해 장기저장 발효공법으로 빚었다. 지난해 우리술 품평회에서 탁주 부문 대상을 수상한 품격 있는 고급 탁주다.

전남도는 전통주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 남도 전통주 품평회'를 열어 담양 죽향도가의 '대대표블루' 등 12개의 남도 전통주 대표 브랜드를 선정했다.

이번 품평회는 철저한 블라인드 테스트로 이뤄졌다. 박옥담 한국전통 연구소장 등 5명의 전문 심사위원이 총 16개 업체 25개 제품의 맛, 향, 색상, 후미 등 관능평가와 우리 농산물 사용실적, 술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서류심사를 했다. 종합대상 1개 브랜드와 탁주, 약청주, 증류주, 과실주, 기타 주류 등 5개 부문 11개 브랜드를 선정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 이번 품평회는 철저한 블라인드 테스트로 이뤄졌다. 박옥담 한국전통 연구소장 등 5명의 전문 심사위원이 총 16개 업체 25개 제품의 맛, 향, 색상, 후미 등 관능평가와 우리 농산물 사용실적, 술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서류심사를 했다. 종합대상 1개 브랜드와 탁주, 약청주, 증류주, 과실주, 기타 주류 등 5개 부문 11개 브랜드를 선정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주민 주도 사회혁신 통한 지역문제 해법 찾기 전남도, 민간단체 등 참석 워크숍

전남도가 동네 현안을 주민이 직접 해결하도록 지역사회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1일 "지난 28일 전남중소기업진흥원에서 도민이 주도하는 지역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사회혁신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회혁신'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정부나 지자체 주도가 아닌 지역 주민이 중심이 돼 스스로 해결하는 새로운 사업 추진 방식이다. 워크숍에는 2021년 사회혁신 공모사업을 추진할 민간단체 대표와 시군 사회혁신 담당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읍면동 마을단위에서 지속가능한 사회혁신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이를 위한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강사로 나선 청년 사회적기업 '공감만세'의 고두환 대표는 여행자가 지불한 돈이 외부 유출 없이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돌아가는 '공정여행' 등 사례 중심으로 사회혁신을 통한 마을 문제 해결과 자립화 방안을 소개했다.

또 사회혁신 공모사업 수행 민간단체에 올해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올바른 보조금 집행을 위한 예산·회계 실무교육도 했다.

손점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복잡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과 지역공동체의 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중요하다"며 "도민이 지역 문제 해결 주역으로 자리매김토록 세밀한 역량 강화와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주민 주도로 지역 문제 해법을 찾는 사회혁신사업에 도비 1억5000만원을 들여 탄소저감·환경정화 6개, 지역 현안 해결 및 주민 공간 개선 7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10개 등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익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똥똥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